락트산 수요 24% 증가

의약 · 식품용 늘어 … 일본 · 스페인산 등 수입 의존

국내 락트산 시장은 수요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신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락트산 수요는 93년 360톤에 금액으로는 8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2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의약용을 비롯한 식품용 등 락트산 수요산업의 전반적인 수요증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국별 현황을 보면, 일본이 160톤으로 국내시장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이 124톤으로 23.5%, EU는 167톤에 3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락트산은 용도에 따라 식품용 · 의약용 · 공업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용도별 순도는 공업용이 80%, 의약용이 99.9%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용도별 가격은 공업용과 식품용이 80%기준 KG당 2500~2800원이며 의약용은 99.9%가 6.70달러로 알려졌다.
공업용은 주로 피혁의 불순물 제거와 표면 유연화를 위해 사용되며 염색모발제로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용의 경우는 산미료와 음료의 산도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의약용은 주로 수액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용의 경우 국내 수액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외제약이 독일 Merck로부터 연간 18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동남아와 남미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등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락트산시장은 스페인의 PURAC을 비롯해 일본의 무사시노 등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의약용은 독일의 Merck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락트산시장은 최근 피혁산업의 침체로 산업용이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약용의 10% 증가, 식품용의 꾸준한 증가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4/4/25>